

# 양계산업 안정화를

## 위한 양계안정기금

— 취 재 부 —

본회는 양계산업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인 가격안정을 제도적으로 시정하여 양계산업의 안정된 발전을 기하기 위해 안정기금과 양계산업 안정을 위한 총합적인 업무를 전담할 전담기구 등에 대한 연구를 그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양계안정기금 설립을 추진하여 온 것은 이미 지난 9월호에 보도된 바이며 지난 9월 21일부터 본회 회의실에서 양계산업 안정기금 적립을 위한 추진 자문위원회 연속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이상윤 회장권한대행을 위시해 류종래(양계산업 안정기금 추진위원장), 오봉국(서울대교수, 자문위원장), 오세정(건대교수,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회장), 박영인(미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장), 이보연(삼일원종농원 대표, 본회부회장), 박준영(한협중계장 대표), 김종곤(현대양계사 대표), 임용택(계우회 연합회 부회장)씨 등이 참석하였다.

이 날 회의는 본회 제 5차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립된 양계안정기금조성 추진위원회(위원장 류종래)의 9월 2일(수) 제 1차 회의 내용과 의결사항을 논의하고, 자문위원들과 추진위원들간에 안정기금의 성격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 〈안정기금의 성격 분명해야〉

이 날 회의에서 우선 안정기금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기금이 확보되면 이 기금으로 업계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하는 神通力을 부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번 우리가 목적하는 양계안정기금은 현 축협중앙회가 관리하는 축산진흥 기금과는 그

뜻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참고로 기금의 성격을 외국의 예로 들면 표와 같다.

방 법	입법조치	대표적인 인예	자 금
적극적인방법	법 적 조 치	호주의Egg Board	안정기금
소극적인방법	행 정 조 치	미국의Egg Board	개발기금
임의적 방법	생산자스스로	한국의양계협회	회 비

여기에서 미국의 AEB (America Egg Board)는 3,000 수이상 사육농가에 부과되는 부과금으로 소비 홍보나 신제품개발등 제한된 목적에만 사용되는 산업 개발기금으로 호



▲ 양계산업 안정을 위한 양계안정기금조성 추진 자문위원회

주의 기금 성격과는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는 협회가 회비 또는 찬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확보가 불안정하고 구속력이 없어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이번에 구속력을 갖는 안정기금을 확보하자는 것이고 거의 모든 양계인들이 이에 찬성하여 서명날인을 하고있는 것이다.

#### 〈기금의 확보문제〉

이날 회의에서 기금의 확보방안으로 외국에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첫째, 생산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극히 적은 액수를 부과하고 둘째, 이 기금으로 혜택을 보는 전체 양계인들이 혜택을 보는 비율로 큰사람은 많이 적은사람은 적게 공평하게 부과 되어야 하며 셋째, 기금 거출을 제품에 부과하는 방법과 원료에 부과하는 방법중 현 우리 형편으로는 원료에 부과하는 방법이 적당하여 이상 3가지 대 원칙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양계용 배합사료에 일정율을 부과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데 이의가 없었다.

이는 언뜻 보기에는 마치 사료공장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으나 엄연히 배합사료 가격외에 생산자가 기금으로 일정액을 더 지불하는 것이며 다만 편이상 사료공장들이 수금만 해주는 것으로, 생산자 부담성격을 분명히 재확인하였다.

#### 〈기금사용의 목적〉

기금은 현재 연간 양계용 배합사료 외형액을 4 천억으로 보고 0.1%를 부과하면 4 억이고 0.5%를 부과하면 20억이 된다. 0.5%를 부과 할경우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은 계란 1개에 약 15전 부로일러의 경우는 kg당 약 3원의 생산비 상승으로 거의 무시해도 좋을 수 치이다.

기금은 사용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품목별로 기금사용이 구분되고 기금을 운용 관리할 미국의 AEB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금은 매년 장기적으로 적립될 것이기 때문에 기금의 사용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체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꾸준히 사용되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사용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



로 기금은 소비홍보, 새로운 제품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발과 조사사업, 비축의 결손이나 수출 결손 보전, 비축가공지원 등 여러가지 사용 방안을 생각할수 있으며 사용할수 있는 한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등 제반 문제의 연구검토는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회장 오세정)에 자문을 의뢰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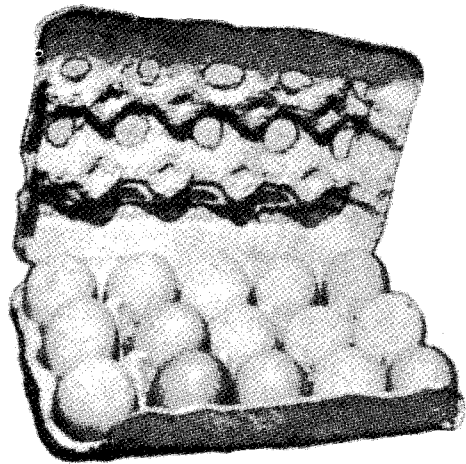
〈기금 조성을 위한 추진문제〉

이러한 원칙하에서 빠른 시일내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장(류종래)에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임하고 협회장과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전체 양계인의 참여를 위해 취지문 등을 통한 모든 방법으로 홍보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한편 추진 자문위원장은 새로운 양계산업 발전의 전기(轉期)로 역사적인 일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서로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전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① 양계업자 전체가 한 의견으로 뭉쳐 움직이고 있다는 표시와 ② 양계협회는 업계의 의견을 종합, 관제요로에 모든 창구(Channel)를 통해 전의 할 것 ③ 이 모든 작업을 위해 업계 스스로의 기금 조성문제와 축산진흥기금에서 이용할수 있는 범위, 입법등의 추진문제등 제반문제에 대해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하여 그 자료를 통해 일관성있게 거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협회는 취지문과 건의문을 작성 양축가와 정부요로에 전달하고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의 시안이 속히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여름철 계란보관은 종이난좌로

- 10개들이 난좌
- 20개들이 난좌
- 30개들이 왕란, 종란용 난좌
- 30개들이 보통난좌



규격 종이난좌는

1. 신선도 유지
2. 부화율 향상
3. 질병 예방
4. 파란 방지

80년대는 과학적인 경영시대

### 한국성형제지공업사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98-1 (전화) 고등우체국 77번

야간 : 1342 (성남) 3-6239